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연구

- 성인기 이전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 미 옥

(전북대학교)

김 희 성

(명지전문대학교)

이 민 영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장애인의 성인기 이전 임파워먼트 과정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대학생 11명을 심층면접 한 후,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rbin, 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성인기 이전 임파워먼트 과정의 중심현상은 '한계를 딛고 일어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인과적 조건은 '그냥 살음'과 '장애 인식'이며, 맥락적 조건은 '배제 당함', '그래도 바래봄', '좌절함'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한계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끈기있게 해냄'과 '지지 받음'의 조건에 의해 중재 받았으며, '생활방식을 터득함', '주도적으로 살음'의 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파워먼트의 결과로 장애인은 '자기조절감을 얻음', '배려심을 갖게 됨', '사회에 참여함'의 모습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핵심범주는 '장애인으로서 주도적인 삶의 방식을 터득하여 당당하게 함께 살아감'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는 장애인 임파워먼트의 3유형 즉, 사회변화 주도형, 개인발전 추구형, 소극적 노력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장애인의 임파워먼트는 '단절단계', '일어섬의 단계', '터득하는 단계', '당당하게 함께 하는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장애인의 임파워먼트는 한번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반복되고 발전하는 순환적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장애인의 성인기 이전 발달 과정에 기초하여 이들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기초한 임파워먼트 과정 및 결과를 규명함으로써 이론 구축 및 장애인복지에 그 함의가 있다.

주제어: 장애인, 임파워먼트, 근거이론, 질적 연구

1. 서론

장애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원인이 불분명한 선천적 장애뿐 아니라 환경오염,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역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장애는 개인에게 다차원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성인기 이전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생애주기별 과업에 따른 심리적 갈등, 자아개념의 부정적 내면화(김효선, 1981; 권순미, 1986), 또래 형성의 어려움(Stevens 외, 1996), 대인관계의 소극적 성향(구본권, 1991)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 장애는 각 발달단계에서 건전한 발달을 위해 필요한 과업 뿐 아니라 부가적인 이슈들을 야기함으로써 성인기 이전 장애인의 자아정체감 형성 및 발달과업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를 갖고 성장하는 성인기 이전 장애인의 발달과정에 나타나는 독특성과 보편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의 발달과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장애인의 부적응적 특성을 조명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현상을 횡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 결과로 장애인이 성인기 이전의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비장애인과 같으며 다른 점은 무엇인지 등 보다 심층적 이해를 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매우 부족하다. 최근 일부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청소년의 청소년기는 ‘늦은 청소년기(delayed adolescence)’라는 용어로 표현될 만큼 일반청소년과 같으면서도 다른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권순미, 1986; Stevens 외, 1996; 김미옥 외, 2003). 따라서 장애인 발달과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명하는 연구, 특히 장애인이 경험하는 건강한 발달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장애인이 발달과정을 통해 겪게 되는 문제나 부적응보다는 적응을 지원하는 전략 혹은 개입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최근 임파워먼트 접근(empowerment approach)이 논의되고 있다. 임파워먼트 접근은 무기력, 억압, 절망의 상태에서부터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을 강화함으로써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억압받는 집단뿐 아니라 실업, 폭력, 빈곤, 학대가족 등 고위험 환경에 있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ortiz-Torres, 1994; Rees, 1998; 김희성, 2002). 임파워먼트 개념을 장애에 적용하여 연구된 것은 많지 않지만, 장애인복지에서 임파워먼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김미옥, 2003; Rothman, 2003). 특히, 장애인복지실천에서 강조하는 장애인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접근과 임파워먼트 접근은 그 용어는 다를지 모르나 내용상으로는 깊은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인기 이전 발달과정에 있는 장애인에게 임파워먼트 접근이 매우 유용한 전략임을 전제하면서,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과 결과를 규명하여 장애인복지에의 함의를 제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and Corbin, 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본 연구가 장애인의 발달과정 중 성인기 이전의 임파워먼트 과정 및 결과를 밝혀냄으로써 이에 대한 이론 구축(theory-building)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근거이론 방법이 갖는 장점이기도 하다. 둘째, 보다 현실적인 함의로써 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정책적 개입의 기초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인의 발달과정에서 적응 혹은 부적응에 대한 사후대처 차원의 프로그램 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할 것이다.

2. 문헌고찰

1) 임파워먼트의 개념

임파워먼트는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임파워먼트는 힘(power) — ‘통제력 소유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 ‘법적 혹은 행정적 권위, 능력 혹은 권위’ 혹은 ‘물리적 힘’(Webster’s Ni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1991: 922) — 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임파워먼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 권위, 영향력의 소유일 뿐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Browne, 1995). 그러나 사회복지실천에서 임파워먼트는 전통적 관점과는 다소 다르다. 일반적으로 임파워먼트는 세 수준으로 나누어진다. 거시적 수준에서의 임파워먼트는 집단적인 정치적 힘을 증대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반면, 미시적 수준에서는 주로 개인에 초점을 둔 것으로 실제적인 구조의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힘 혹은 통제력이 증대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접근은 이 양자의 접근간 간격을 좁히려는 시도로서, 개인에 대한 임파워먼트가 집단에 혹은 집단에 대한 임파워먼트가 개인의 임파워먼트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Gutierrez, 1990; 양옥경 외 1999; 재인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그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nz-Beaulaurier, 1998). 역사적으로 임파워먼트 접근은 억압받는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가치절하된 차별의 대상이며 소수집단인 장애인 역시 임파워먼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울펜스버거(Wofensberger, 1983)는 정상화 개념과 연결시켜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가치화(Social Role valorization)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향상과 능력이 강화되는 서비스 전략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울펜스버거가 장애인의 능력강화를 임파워먼트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임파워먼트의 개념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2) 임파워먼트에 관한 선행연구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는 개인, 가족, 조직, 지역사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다(Keiffer, 1984; Zimmerman 외, 1988; Gibson, 1991; Zimmerman, 1995; Parsons, 1999; 양옥경·김미옥, 1999; 김인숙·우국희, 2002; 김희성, 2002; 이민영, 2002).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개인

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서 임파워먼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임파워먼트 과정

일반적으로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영향요인이나 임파워먼트의 매개 혹은 조절 효과 등 횡적 측면을 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중에서 임파워먼트를 종적 측면에서 고찰한 임파워먼트의 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파슨스(Parsons 외, 1998)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임파워먼트 과정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자기가치에 대한 믿음의 단계로서 자신을 위해 행동하고, 자신의 가치와 자기 통제감을 확신한다. 2단계는 확인단계로서 집단 경험을 통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확인한다. 3단계는 준비단계로서 상호공유와 지지를 통해 문제의 내·외적 측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행동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준비한다. 4단계는 행동단계로서 개인의 행동 전략과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4단계를 통하여 개인은 권한부여(empowered)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로드와 허치슨(Lord and Hutchison, 1993)은 사회적 고립, 빈곤, 학대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의 임파워먼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단계는 경험 단계로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무기력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인식단계로서 위기나 생활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분노를 폭발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새로운 역할 습득 단계이다. 즉,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원을 연결하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게 된다. 4단계는 참여단계로서, 집단에 참여하고, 표현하고, 참여능력을 확대하게 된다. 5단계는 기여단계로서 영향력을 갖게 되며 자기 효능감을 성장시켜 하나의 역할모델로서 기여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5단계 과정을 통해 무기력을 경험한 사람은 임파워먼트 된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과정을 설명한 리스(Rees, 1998)는 임파워먼트를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1단계는 무기력함에 대해 이해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들의 희망 없음과 절망에 대해 얘기하며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게 된다. 이는 로드와 허치슨(Lord and Hutchison, 1993)이 제시한 1단계와 매우 유사하다. 2단계는 인식과 상호 교육의 단계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며 상호교류를 하게 된다. 3단계는 대화와 결속력의 단계로서 가족, 조직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환경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인 행동과 정치적 정체성 단계는 자신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강하면서도 유연한 단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들은 단선적이 아닌 순환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마지막 단계가 결코 끝이 아니며 이전의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장애와 관련해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대해 살펴본 깁슨(Gibson, 199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임파워먼트 과정을 현실의 발견, 비판적 사고, 책임짐, 유지함의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1단계인 발견의 단계에서는 감정적, 인식적, 행동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현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자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가족, 의료보장제도,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을 경험한다. 이 시기에는 현재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이 좌절감은 임파워먼트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성장과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 2단계는 비

판적 사고를 하는 단계로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개인적 힘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강점, 능력, 자원을 인식한다. 3단계인 책임을 지는 단계에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자녀를 옹호하고, 의료 체계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협상을 통해 의견과 욕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인 유지함은 자신의 강점과, 능력, 역량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힘과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의 결과를 참여하는 역량(participatory competence)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케이퍼(Keiffer, 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임파워먼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개인의 가치와 믿음, 결단, 경험과 사회적 지지라고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로는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임파워먼트 경험에 관해 연구한 김효빈(2001)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임파워먼트의 중심현상은 ‘마음 다스리기’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의 과정은 1단계는 인식단계로서 자신의 부정적 사고가 건강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달으며 마음 다스리기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단계이다. 2단계는 변화시도 단계로서 위기의식을 느끼며 절박한 심정으로 무력감을 벗어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며 새로운 생활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신념구축단계로서 병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건강관리에 참여하고, 변화한 행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위기를 극복하여 의도적인 문제해결활동을 위한 신념을 확립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인 활력증진 단계는 문제해결활동을 위한 신념구축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여 이를 활성화시키는 단계로 자신의 한계 속에서도 힘을 축적해 나가며 건강의 목표를 달성한다.

(2) 임파워먼트 결과

임파워먼트의 결과는 학자마다 상이하게 제시된다. 짐머맨과 래포트(Zimmerman and Rappaport, 1988)는 임파워먼트를 통해 달성되는 결과로서 내·외적 정치효능감, 주도성, 자기 효능감, 지각된 역량, 통제에 대한 열망, 시민의무, 통제 이데올로기, 기회통제, 내적통제, 힘있는 타인의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후 짐머맨(Zimmerman, 1990)은 이 연구를 발전시켜 내적 정치효능성, 인지된 역량, 통제에 대한 열망, 내적 통제감의 4가지로 임파워먼트의 결과를 구분하였다. 이 연구를 발전시켜 짐머맨(Zimmerman, 1995)은 임파워먼트를 개인내적(intrapersonal), 상호작용적(interactional), 행동적(behavioral) 임파워먼트로 차원을 구분하였다. 한편 크라이머(Kraimer 외, 1999)는 임파워먼트를 통하여 의미, 역량, 자기결정, 영향이라는 네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크라이머(Kraimer 외, 1999)와 짐머맨(Zimmerman, 1990)은 공통적으로 임파워먼트의 결과로서 역량을 얻을 수 있으며, 용어는 다르지만 자기결정 혹은 내적 통제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됨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연구한 오티즈-토레스(Ortiz-Torres, 1994)는 임파워먼트의 결과를 심리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으로 구분하며 심리적 차원에서는 자존감과 효능에 대한 기대, 행동적 차원에서는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파슨스(Parsons, 1999)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여(Zimmerman, 1995; Bolton 외, 1996) 임파워먼트를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지역사회/정치적 임파워먼트의 차원

으로 분류하였다.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는 자기인식, 자기수용, 자아에 대한 믿음, 자기 존중감, 권리의 식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는 자기주장, 한계설정, 도움을 구하는 것, 문제해결, 자원동원의 결과로 요약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정치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에의 참여 혹은 기여하거나 대중 앞에 나서는 등의 행동적인 측면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

3.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유의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였다(Strauss and Corbin, 1998). 첫번째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자가 연구이전부터 알던 분으로서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체장애여성이다. 연구자는 이전의 관계 경험과 관찰을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하여, 첫번째 참여자를 결정하였다. 첫 인터뷰에서 연구의 목적과 의의 등을 설명하고 임파워먼트 개념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 연구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장애인을 추천받는 형태인 눈덩이 표집을 하였다. 두번째 추천받은 연구 참여자는 대학생이면서 장애인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이 참여자의 추천을 통해 다른 참여자를 선정해 나가는 형태로 총 11명을 인터뷰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인기 이전의 경험을 탐색하면서 대학생으로 그 대상을 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은 성인기에 진입한 시점이 오래되지 않아 이전 경험을 생생하게 기술할 수 있으면서도 대학생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학생이 아닌 경우 직업이 주요 초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셋째, 장애인들이 직면한 현실적 벽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라는 관문을 뚫고 현재에 잘 적응하며 대학생활을 해 나가는 그 자체를 임파워먼트의 하나의 결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뷰에서 각 참여자들에게 과연 본 연구진의 의도가 적절한가를 재질문하였고, 본 연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장애전문가에게 그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연구참여자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장애전문가 모두 그 적절성에 동의하여 본 연구진은 대학생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성인기 이전의 경험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경험을 심층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더 이상 새로운 의미있는 진술이 발견되지 않는 포화시점까지 표집하여 총 11명을 인터뷰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11명 모두 대학생이었으며, 연령은 20대 초~30대 초였다.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참여자의 연령이 30대 초반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의 경우 늦게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6명, 여성이 5명이었고, 선천적 장애 7명, 유아기와 아동기에 장애가 시작된 후천적 장애 4명이었다. 장애종별로는 시각장애 1명, 뇌병변장애 6명, 지체장애 4명으로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대상을 선정하였다.¹⁾

1)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연구결과분석의 각 참여자별 진술을 <a>~<K>로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 및 분석 기간은 2002년 8월부터 2004년 9월까지이었다. 자료포화를 위한 표집과 공동연구자의 의견 교환 및 분석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연구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되었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진이 직접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2시간에서 3시간정도 심층 면담을 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 동의서에 합의를 받은 후 시작하였으며, 참여자의 표현을 생생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면담의 방법은 연구참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면담에서의 질문은 공식적이고 순서적이라기보다는 면접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질문하였다. 면담장소는 참여자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면담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곳으로 편안한 환경의 제공을 원칙으로 하였다. 자택 방문, 학교 연구실이나 세미나실, 조용한 찻집, 교회봉사자실 등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면담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하였고,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면담하거나 전화나 전자메일을 할 경우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성인기 이전 임파워먼트 과정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을 인터뷰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 ‘장애발견시점부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장애를 극복하게 한 과정은 무엇인가?’, ‘장애로 힘들었을 때 자신에게 스스로 힘을 부여하며 극복하게 한 동인, 그 과정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and Corbin, 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에서 연구자는 이미 이론을 설정한 후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자료로부터 생성되도록 한다. 따라서 근거이론은 자료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직관력을 제공하며, 이해를 강화하고, 행동을 하는데 의미있는 지침을 제공해 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즉,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건 대 사건 비교와 은유와 비유를 통한 이론적 비교를 통해 사고를 촉진하고 이론적 표본을 추출하도록 돕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사례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탐색을 통하여 이론적 표본추출을 돕는 기능을 한다.

본 연구에서 코딩은 자료를 분해하고 개념화하며 이론을 형성시키기 위한 분석과정으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 장애인복지관련 교수, 장애인복지전공 박사과정, 장애인복지현장 전문가, 장애인 운동가 등에게 본 연구결과에 대한 자문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동의와 합의 과정 자체가

연구자 개인의 관점을 최소화함으로써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작용하도록 하였다.

4) 연구방법의 평가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의 평가는 다르다. 최윤정 외(2002)는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립성의 고수이다. 질적연구에서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모든 편견으로부터 가능한 해방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연구에 대한 선 이해, 가정, 편견 및 주제와 관련된 개인 경험 등을 보고하여 자기성찰과 민감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장애인관련전문가와의 의견교환과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활발한 피드백을 교환하여 합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일관성(consistency)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연구방법에 따른 정확한 과정, 특히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학자에게 연구결과의 평가를 의뢰하여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높였다.

셋째, 질적 연구에서 ‘사실적 가치(trust-worthy)’는 경험의 진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연구대상자의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유태균 역, 2001).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중 2인을 선정하여 본 연구결과를 다시 읽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연구에 반영하였으며, 장애인동자 1인으로부터 연구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반영하였다.

넷째, 질적 연구에서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에서 연구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 전공 교수 3인, 장애인복지 전공 박사과정 3인,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2인으로부터 연구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아, 본 연구가 연구 참여자 이외의 장애인에게 적용 가능한 결과인지에 대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연구결과분석

1) 근거자료의 범주화

연구 참여자들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105개의 개념들이 나타났다. 이를 다시 개념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유목화한 결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 장애인이라 생각하지 않음, 세상을 모름 등 22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는 다시 유목화 작업을 통해 그냥 살음, 장애 인식, 배제당함, 그래도 바래봄, 좌절함, 한계를 딛고 일어섬, 끈기있게 해냄, 지지받음, 생활방식을 터득함, 주도적으로 살음,

자기조절감을 얻음, 배려심을 갖게 됨, 사회에 참여함의 12개의 상위범주로 구분되었다. 이 외에 미래에 대한 고민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 개념의 범주화 : 개방코딩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자원이 부족한 환경, 가난함, 적절한 치료 못함, 방법을 모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	그냥 살음
나을 거란 희망 가짐, 제한점 인식 못함, 장애인식 못함, 노력도 안 했음,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함	장애인이란 생각하지 않음	
세상물정 모름, 순진함, 혼자 지냄, 닫힌 생활함(과보호), 순종적임, 가족밖에 모름, 책/TV가 친구	세상을 모름	
잘 걷지 못함, 잘 읽지 못함, 외모가 다름, 장애를 알게 됨	남과 다름	장애 인식
학교입학이 늦어짐, 포기함, 또래보다 뒤쳐짐	뒤늦음	
수치스런 존재로 인식됨,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움, 회피함, 모습을 감춤, 창피함	소외됨	배제 당함
놀림 당함, 거부당함, 배려받지 못함, 박탈됨, 시선을 참기 힘들, 보장구 없어 나오지 못함	거부당함	
장애를 운명이라 생각, 저주받았다고 생각, 열리지 않는 문에 집착함, 마음을 닫음	마음을 닫음	그래도 바래봄
상상, 공상, 자유를 느낌, 나도 하고 싶음, 새로운 삶을 꿈꿈	꿈꿈(상상함)	좌절함
친구 사귀기를 시도함, 못 어울림, 이방인처럼 느낌, 언어코드가 안 맞음, 오해를 만듦	코드 다름	
편견(차별)을 경험함, 배신당함, 충격받음, 살기 싫음, 자살 시도, 좌절감	실패를 경험함	
현실직시함, 환상이 없어짐, 자존심이 없어짐, 자신을 낮춤	자존심 낮춤	한계를 닫고 일어섬
죽을 각오로 살아감, 싸움, 살아남으려는 몸부림, 오기발동, 고통을 감내함, 부딪히며 강해짐	살아남으려는 절박함	
도전 정신,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한계를 두지 않음, 양심, 추진력, 끈기, 참을성, 내 것은 내가 찾아야 한다는 인식	끈기있게 해냄	끈기있게 해냄
친구의 지지, 가족의 지지, 선생님의 지지, 동료 장애인의지지, 종교의 지지	주변으로부터 지지	지지 받음
장애관련 전문가를 존경함, 역사적 위인을 마음에 새김, 성공한 장애인을 본받음	역할모델을 만듦	
(형제간, 학생간,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똑같이 대해줌, 보통사람처럼 대해줌, 일반인과 경쟁함, 어렵게 통학함	열외 없이 대해줌	
불편해도 살기 마련임, 장애에 적응방법 터득함, 스스로 이겨내는 방법 알게 됨	발견하기	생활방식을 터득함
장애인의 희소성, 미래를 위해 노력함(장애학교 입학, 대학진학)	실력키우기	
외부도움 필요를 인식함, 주변 자원을 적극 활용함, 도움을 거부하지 않음, 당당하게 부탁함	당당하게 요청하기	

<표 1>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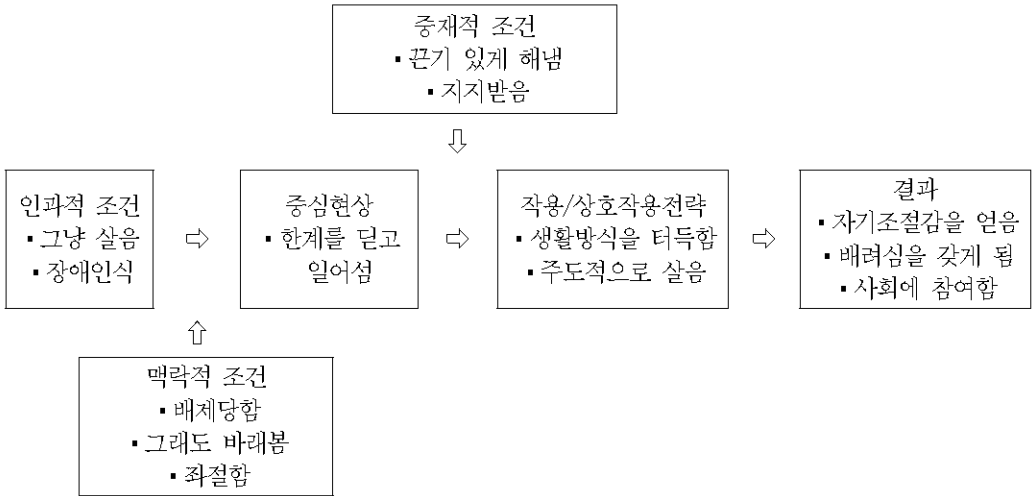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친구를 선택함,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음, 고등교육을 선택함	선택하기	주도적으로 살음
혼자 사회로 나와 봄, 도움없이 스스로 해봄, 혼자 살아봄, 비장애인을 이기는 경험을 해 봄	스스로 해보기	
작지만 깊은 관계맺음, 동지애, 장애인과 새로운 관계, 연애 해봄, 새로운 친구 사귀기	새로운 관계 형성하기	
새로 태어나는 느낌, 회복감, 자기 개발함, 희망을 가짐	자기를 소중히 여김	자기조절감 을 얻음
자신의 욕구를 앎, 원칙주의, 융통성, 의지를 표현함, 자기를 조절함, 자기에 맞는 인생을 찾아감	자신의 욕구를 알게됨	
행복의 소중함, 용서하며 감정 비움, 겸손, 용서를 실천함	겸손함	배려심을 갖게 됨
통찰력, 다 다른 삶, 사람에 대한 배려, 연민,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	성숙함	
특수학교 다닌걸 후회함, 비장애인과 접촉이 중요, 일반학교에 힘들게 다닌 게 다행임	통합교육 주장	사회에 참여함
사회가 장애인, 장애는 극복이 아닌 권리 찾기, 보장구 보급 필요, 편의시설 보완	사회의식화	
장애인 활동에 열의, 동등한 참여, 장애인을 위한 동아리 운영, 영향력 있음, 함께 운동함, 함께 생활함	함께 어울림	
대학(특례)입학 후 따라가지 못 함, 연애와 결혼 등의 고민, 사회에서 또 다른 방황시작, 취업의 어려움	진로 걱정	
		미래에 대한 고민

2)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

본 연구에서는 <표 1>의 결과를 기초로 축코딩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그림 1>의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다음에서는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해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구체적인 진술 및 설명을 제시하였다.

(1)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에서 인과적 조건은 장애 인식 정도에 따라 달린 생활을 하며 그냥 살아가는 것이었고, 맥락적 조건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당하는 것, 그래도 개인적으로 꿈꾸며 바래보는 것, 사회와 상호작용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중심현상은 ‘한계를 딛고 일어섬’이었고, 이러한 중심현상 속에서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재적 조건은 끈기 있게 해내는 개인적 성향과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장애에 맞는 생활 방식을 터득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자기조절감을 얻음, 배려심을 갖게 됨, 사회에 참여함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 축코딩

①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나 조건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냥 살음’과 ‘장애 인식’은 중심현상인 ‘한계를 딛고 일어섬’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그냥 살음

참여자들은 임파워먼트 과정의 조건으로서 사회적, 개인적 자원의 결핍으로 인하여 장애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장애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험을 제시하였다. 집안 환경이 어렵거나 장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장애에 대한 치료/재활 자원이 부족한 환경으로 인하여 장애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를 원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그 원인을 돌림으로써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여 어떠한 노력 없이 세상을 모르는 채 살아온 경험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적절한 대처 부족으로 외부와 단절되어 혼자 지내면서 생활하는 경험을 하였다. 집밖으로의 외출은 거의 없었고 책이나 TV와 친구가 되어 상호작용을 하였다. 24시간 가족의 보호를 받았지만, 어머니의 과보호는 달린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 ‘장애인이라 생각지 않음’, ‘세상을 모름’으로 하위 범주화하였고, 이를 ‘그냥 살음’이라는 상위범주로 통합하였다.

일년 동안 휴학을 하면서 저는 곳을 많이 했어요. 가난뿐 아니라, 무지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저의 질병을 잘 이해 못했고 또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되게 무지했어요.<a>

중학교 때까지는 자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나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왜 내 몸은 불편하지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은 조금도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씩 ‘너는 몸도 불편한데 굉장히 표정이 밝다...그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니까 그렇지<c>

나. 장애 인식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 정도를 생활 속에서 알게 되었다. 또래들과 함께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험으로부터 그것이 장애 때문이라는 것을 처음 인식하게 되었다. 신체적 상태가 조금씩 나이지고 변화될 때마다 학교에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짐을 경험하였다. 그렇지만 번번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자 의지가 약해지거나,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점점 뒤늦어가는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남들과 다름’, ‘뒤늦음’으로 하위 범주화하였고, ‘장애 인식’이라는 상위범주로 통합하였다.

장애를 인지하게 된 건 9, 10살 정도 그때면 다들 학교 다닐 나이인데 제가 학교 늦게 들어간 이유를 잘 몰랐어요..내 동갑은 학교 다니고 있는데 나는 안 다니고..그때 내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고..초등학교는 12살에 들어갔어요.

여름에 어떤 아이가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 몸이 저렇구나 그런 이후로 계속 감추는..내 몸이 남들과 같지 않다는 거 같지 않다는 게 이롭담지 않다는 거 그런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g>

정리하면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의 인과적 조건으로는 ‘그냥 살음’과 ‘장애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속성과 차원으로 구분해 보면, ‘그냥 살음’의 속성은 정도이며, 차원은 강함-약함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인식’의 속성은 정도이고 차원은 중증-경증으로 나눌 수 있었다.

<표 2>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하위범주	상위범주	속성	차원	패러다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	그냥 살음	정도	강-약	인과적 조건
장애인이라 생각지 않음				
세상을 모름	장애 인식	정도	중증-경증	
남과 다름				
뒤늦음				

②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장으로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취해지는 일련의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제 당함’ ‘그래도 바래봄’ ‘좌절함’이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즉 임파워먼트 과정에서 참여자는 이러한 맥락적 조건의 정도에 따라 중심 현상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가. 배제당함

참여자들은 가족, 친구, 학교, 사회 생활 속에서 배제당함을 경험하였다. 친구들의 놀림과 괴롭힘을 경험하고,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수치스런 존재로 인식되었던 경험이 있다. 편의시설, 보장구가 없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신체로 학교, 학원 등에서 거부당해 왔다.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미묘한 태도와 참기 어려운 시선은 절대 잊을 수가 없었다. 참여자들은 자기를 내보이고 싶어하지 않고, 장애인으로 인식되는 것이 싫어서 말을 하지 않게 되거나 몸을 감추는 옷(모자)을 입게 되는 등 비장애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두려움을 경험하며 상대방에게 거부당할까봐 미리 걱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소외됨’, ‘거부당함’으로 하위 범주화하였다.

중학교 때에는 괴롭히는 애들도 있었어요 숙제를 해달라는 애들한테..그냥 맞았어요 때리면 맞고 괴롭히면 괴롭힘 당하고..

16-17살 때 가끔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너무 싫었고요..사람들이 증오스러울 정도로..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다 나에게로 쏠릴 때, 동물원 원숭이 바라보듯이..그건 안 당해 본 사람은 몰라요.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힘들었어요.<e>

나. 그래도 바래봄

참여자들은 장애에 대하여 저주받은 것이라 생각하거나, 부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혼자 속상해 하였다. 분노를 안고 있으며 열리지 않는 문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그래도 참여자들은 현재를 살아가려 노력하였으며 상상을 통해 장애인으로서의 삶에 인주하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원동력을 찾기도 하면서, 사회에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본 연구에서는 ‘마음을 달음’, ‘꿈꿈(상상함)’으로 하위범주화하였다.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나..아니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 값을 다하느라 이렇게 태어났다...<중략>.. 내가 비장애인이라면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싶을 텐데.. 하는 상상을...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도 사회 안에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a>

다. 좌절함

참여자들은 사회로 나가보려고 시도해 보지만, 자신의 능력이 통하지 않고 오해로 인한 황당함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언어 코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점점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없다고 믿게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알게 되고 실패로 인해 충격을 받는다. 장애인체보다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좌절감, 예컨대 학교 성적 하락과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자살을 시도하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본 연구에서는 ‘코드가 다름’과 ‘실패를 경험함’으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어느 날인가..제가 말하는 의미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틀린 거예요. 같은 행동, 말을 해도 나는 솔직히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 듣기에는..사회적 언어의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는 애들하고 그런 걸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는 거죠.<c>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울고 지쳐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친구도 없고, 여자에 대해서도 짝사랑하다가 차이게 되고.. 정말 혼자인 것 같았거든요.<k>

정리하면 장애인 임파워먼트 과정의 맥락적 조건으로 ‘배제당함’, ‘그래도 바라봄’, ‘좌절함’이 상위범주로 통합되었다. 이를 속성과 차원으로 구분하면, ‘배제당함’과 ‘좌절함’의 속성은 정도이며, 차원은 강함-약함으로 구분되었다. ‘그래도 바라봄’의 속성은 본질이고 차원은 현실적-비현실적으로 나타났다.

<표 3>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하위범주	상위범주	속성	차원	패러다임
소외됨	배제당함	정도	강-약	맥락적 조건
거부당함				
마음을 담은 꿈꿈(상상함)	그래도 바라봄	본질	현실적-비현실적	
코드 다름	좌절함	정도	강-약	
실패를 경험함				

③ 중심현상

중심현상이란 참여자가 일련의 전략을 통해 조절하거나 해결하려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하여 나타난 중심 관념 또는 사건은 ‘**한계를 딛고 일어섬**’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현상은 참여자의 대처능력을 경험하는 일련의 전략들에 의해 조절됨을 알 수 있었다. 이 현상은 장애인이 처해 있는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중심현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는 사회에서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느끼기 시작하였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환상은 없어지고 체념할건 체념하지만 자아실현의 욕구가 발동하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장애인으로서 한계와 현실을 인식하고 자존심을 낮추면서 살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살아남으려 몸부림치는 자신을 씹담, 오뚜기,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상징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본 연구에서는 ‘자존심 낮춤’, ‘살아남으려는 절박함’으로 하위 범주화하였다.

청소년기에...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장애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자체가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거기서 이제 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예요. 할 수 있는 것을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것만큼은 나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한계에 있지만 너는 백미터 이십 초에 뛰냐? 나는 중간에 오십 미터만 20초에 뛰어보겠다 이거야. 비록 휠체어는 굴리겠지만... <a>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나갈지 생각(하게 되죠). 장애를 인정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i>

정리하면 자존심 낮춤, 살아남으려는 절박함이라는 하위범주는 한계를 딛고 일어섬이라는 상위범주로 통합되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 과정의 중심현상으로 보았으며 그 속성은 수준이며, 차원은 높음-낮음으로 구분하였다.

<표 4>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

하위범주	상위범주	속성	차원	패러다임
자존심 낮춤 살아남으려는 의지	한계를 딛고 일어섬	수준	높음-낮음	중심현상

④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을 말하며,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 속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범주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를 딛고 일어섬’의 전개과정에서 취해지는 전략이 개인적 성격 성향과 지지적 관계에 따라 촉진 또는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끈기있게 해냄’과 ‘지지받음’을 중재적 조건으로 구성하였다. 중재적 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끈기있게 해냄

참여자가 장애인으로 적응하면서 나아가는데 자신의 성격적 성향이 중요한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끈기있는 성격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끝까지 하는 습관, 경쟁심과 리더가 되려는 욕심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중재적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이며 끈기있는 성격적 성향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들을 ‘끈기있게 해냄’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하였다.

평소에는 되게 인주하는 성격이면서도 어떤 일이 닥치면 굉장히 밀고 나가는 성격이에요.

지금도 힘든 일이 있으면 자고 일어나서 또 다시 해내는 스타일이다. 끈기가 있는 거 같고,, <f>

나. 지지받음

장애인들은 가족의 지지와 지원이 절대적이라 느끼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장애인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어머니)과 친구 같은 형제자매들 그리고 불편을 도와주는 보통의 친구들뿐 아니라 1~2명의 진정한 친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학교생활을 통해 만난 훌륭한 선생님들의 조언과 따뜻한 말 한마디(배려)는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었고, 동료 장애인의 삶을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은 제 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종교, 장애인 선배, 장애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체험담 등을 통해 닳고 싶은 역할 모델을 만들어 정신과 행동의 지표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이 지지받았다고 느낀 것은 부모, 친구, 교사들 모두가 자신들을 보통사람처럼 대해주고 열외없이 똑같이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경험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주변으로부터 지지’, ‘역할모델을 만들’, ‘열외없이 대해줌’으로 하위범주화하였다.

못해서 혼나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하는 건 다했어요 열외 그런 거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 열외가 없었던 게 더 좋았던 거 같아요. 오히려 절 질책하는 게 더 고마웠어요.<h>

어려움을 느낄 때 저는 그 선각자 위인들 그런 삶을 되짚으면서 마음을 다듬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성공하신 분들의 일대기 그런걸 읽어요.<d>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의 중재적 조건은 ‘끈기있게 해냄’과 ‘지지받음’이라는 상위 범주로 통합되었다. ‘끈기있게 해냄’의 속성은 연속성이며, 차원은 지속적-일시적으로 나타났다으며, ‘지지받음’의 속성은 정도이고 차원은 많음-적음으로 나타났다.

<표 5>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하위범주	상위범주	속성	차원	패러다임
끈기있게 해냄	끈기있게 해냄	연속성	지속적-일시적	중재적 조건
주변으로부터 지지	지지받음	정도	많음-적음	
역할모델을 만들				
열외없이 대해줌				

⑤ 작용/상호작용 전략

어떤 현상이 전후 관계 혹은 특정 조건하에 존재하는 것처럼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며, 수행하고, 반응하는데 사용되는 작용/상호작용이 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연적이며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목적을 지니는 목표 지향적인 속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를 닫고 일어섬’의 중심현상을 변화시키려고 조절하는 것으로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장애인은 끈기있는 성격과 지지받음 뿐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스스로 터득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하여 한계를 닫고 일어서는 중심현상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생활 방식을 터득함

참여자(자)는 점차 장애인으로서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휠체어이용방법, 자신만의

일상생활 방법 뿐 아니라 대학진학, 직업재활, 컴퓨터 등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스스로 먼저 선생님에게 매달리는 등 주변 자원을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제 장애인 도움의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비장애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거자료로부터 ‘발견하기’, ‘실력키우기’, ‘당당하게 요청하기’ 등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이 개념들을 ‘생활방식을 터득함’이라는 상위범주로 통합하였다.

사람이 몸이 불편해도 다 살기 마련인 게..나름대로의 방식이 생겨요. 다 발견하게 되요. <중략>
삶의 방식이 저도 모르게 찾아지는 거예요, 적응을 한다고 하는 거죠, 불편한 사람들은 저마다 노하우가 있어요. <c>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됐어요 했는데, 지금은 고맙습니다 하고 도움 받아요.

나. 주도적으로 살음

참여자는 살아야 하는 절박함을 인식하고 장애인으로서의 한계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삶에 대한 정신력을 강화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였다. 학교 생활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였으며,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맘이 맞는 친구들과 무리를 형성하는 등 의욕을 보였다. 또한 부모님과 떨어져 보거나, 혼자서 외출해 보고, 운전을 배우는 등 독립적 생활을 통해 자신감을 찾아갔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작지만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거자료로부터 ‘선택하기’, ‘스스로 해보기’, ‘새로운 관계 형성하기’로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이 개념들을 ‘주도적으로 살음’이란 상위범주로 통합하였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엄마 아빠 없이 목사님이랑 생활을 했었죠, 힘들긴 힘들었는데, 그 이후로 집을 떠나서 생활할 수 있었죠. 그 전까지는 혼자 생활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상상도 안 했었는데 집에 안 들어간다는 게 가능하게 됐고...<g>

인권운동 현장에도 나가면서 거기에서 많이 배웠어요. 대학 들어가서 왜 내가 이렇게 자신없어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다른 장애인들은 당당하고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스스로 좀 창피하더라고요

정리하면 장애인 임파워먼트 과정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생활방식을 터득함’과 ‘주도적으로 살음’이 상위 범주로 통합되었다. ‘생활방식을 터득함’과 ‘주도적으로 살음’의 속성은 본질과 정도이며, 본질의 차원은 부분적-전체적으로 나타났으며, 정도의 차원은 적극적-소극적이었다.

<표 6>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하위범주	상위범주	속성	차원	패러다임
발견하기	생활방식을 터득함	본질 정도	부분적-전체적 적극적-소극적	작용/상호 작용 전략
실력키우기				
당당하게 요청하기				
선택하기	주도적으로 살음	본질 정도	부분적-전체적 적극적-소극적	
스스로 해보기				
새로운 관계 형성하기				

⑥ 결과

결과는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중심현상이 조절되면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감을 얻음’, ‘배려심 갖게 됨’, ‘사회에 참여함’이 결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는 ‘배제 당하면서도 바라보지만 좌절하는’ 맥락적 조건에서 ‘한계를 딛고 일어섬’의 중심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끈기와 지지의 중재로 ‘생활방식을 터득하여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여 ‘자기조절감을 얻고 배려심을 갖게 되며 사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자기조절감을 얻음

참여자들은 임파워먼트 경험을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제시하면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자신의 욕구를 알게 되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중심이 있으면서도 유연하게 자신을 조절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신에게 당당해지면서 현실에서 만족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근거자료로부터 ‘자기를 소중히 여김’, ‘자신의 욕구를 알게 됨’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이 개념들을 ‘자기조절감 얻음’이란 상위범주로 통합하였다.

장애인 단체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너무 과격해요 <중략> 융통성을 갖고 적당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해야지, 받기만 하는 건 자기 권리의 차원이 아니다...(당연한 것과 당연한 것은 다르다)...

나. 배려심을 갖게 됨

임파워먼트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동시에 삶에 대한 겸손함과 자신의 소중함을 절감하게 된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용서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장애로 인해 새 세상을 얻었고, 장애인으로의 삶이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였다. 사람마다 각자의 독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사람에 대한 배려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근거자료로부터 ‘겸손함’과 ‘성숙함’의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고, 이 개념들을 ‘배려심을 갖게 됨’이란 상위범주로 통합하였다.

나는 장애를 가진 게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장애가 없었다면...인생의 진미를 그러니까 골수를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사회에 불평 불만을 느끼기는 하지만..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가졌다는 것. <a>

장애를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긍정적인 면은...사람을 배려하는 힘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더 성숙해진다고 그러고 하나하나 더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다. 사회에 참여함

임파워먼트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기조절감과 배려심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삶을 살고자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접촉이 가장 중요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우물 안 개구리 수준이라 생각하였고, 장애인 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게 되었다. 장애인은 사회가 만드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장애는 극복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이라며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근거자료로부터 ‘통합교육 주장’, ‘권리의식 향상’, ‘함께 어울림’으로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고, 이 개념들을 ‘사회에 참여함’이란 상위 범주로 통합하였다.

자유로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참여의 길이예요. 연애도 해보고, 비장애인과 어울려 보고, 운전을 하고 다님으로써 자유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자기 영역이 더 넓어지는 그런 힘들이 희망이 됐다는 거예요 <a>

<표 7> 결과의 속성과 차원

하위범주	상위범주	속성	차원	패러다임
자기를 소중히 여김 자신의 욕구를 알게 됨	자기조절감을 얻음	정도	많음-적음	결과
겸손함 성숙함				
통합교육 주장 권리의식 향상 함께 어울림	사회에 참여함	수준	높음-낮음	

정리하면 장애인 임파워먼트 과정의 결과로 ‘자기조절감을 얻음’, ‘배려심을 갖게 됨’, ‘사회에 참여함’이 상위 범주로 통합되었다. 이를 속성과 차원으로 구분하면, ‘자기조절감을 얻음’의 속성은 정도이며 차원은 많음과 적음으로 나타났다. ‘배려심을 갖게 됨’의 속성은 정도이며 차원은 넓음-좁음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에 참여함’의 속성은 수준이고 차원은 높음-낮음으로 나타났다.

(2) Story Line의 전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임파워먼트 과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개됨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장애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제대로 된 치료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어린시절이 지나갔다. 동네 친구들과 학교에 같이 다니지 못해 늘 혼자였고, 그 외로움을 책과 TV를 친구삼아 달래며 무료해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이대로 살아야 할까... 절망스러웠다. 왜 내가 점점 다른 친구들보다 뒤쳐져 가는지, 가족, 친구, 학교, 사회생활 속에서 소외되고 배제당하는지 장애가 원망스러웠다. 학교 친구들은 놀리고 괴롭히고, 가족들마저도 날 수치스레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를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미묘한 태도와 시선은 절대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늘 숨고 싶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두려워하였다.

가끔 난 친구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다. 나는 우스운 농담을 얘기했는데, 친구들은 웃지 않고, 분위기만 썰렁해진다. 그리고 아주 가끔 괜한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점점 어렵게 느껴지고,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견디기 버겁기만 하다. 잦은 실패로 좌절하고 충격이 커지면서 삶을 포기하려 하기도 했다. 장애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대로 주저앉아 적당히 살아볼까 생각도 해보지만, 나도 사람들과 섞여 제대로 살고 싶다는 절박함이 저 마음 한 구석에서 꿈틀거린다. 나도 살고 싶다..

나는 '살아내야 한다는 절박감'에 몸부림치며, 그래 한번 살아보자.. 결심한다. 장애인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체념할건 체념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싹달이나 오투기처럼 나는 한계를 딛고 일어서기로 한다. 생각해 보면, 부모님, 형제들, 선생님들, 선배 장애인들.. 내 주변에는 내가 한계를 딛고 일어서기를 기다리며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나를 보통사람처럼 대해주고 열외없이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장애인으로서 나를 받아들이면서, 점차 나는 장애인으로 사는 나만의 방식을 알게 되었다. 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에 대처하는 나만의 방식을 갖게 되었고, 학교, 학원을 다니는 등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방식을 터득하였다. 친구와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하였다. 장애인으로서 임파워되는 것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나는 장애인이라고 움츠리기보다는 나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욕구를 알게 되면서 너무 과격하지 않게, 그러나 중심이 있고, 유연하게 자기를 조절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삶에 대한 겸손함과 성숙함을 유지하려고 늘 노력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용서하며, 장애인으로서의 삶이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긍정적 생각을 해 보기도 한다. 그리고 나 처럼 힘들게 살고 있을 동료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인권 운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장애인을 만드는 것은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사회이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자기 권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바로 사회인으로서 비장애인과 함께 이 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권한부여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3) 선택코딩에 따른 핵심범주와 유형

(1) 핵심범주

선택코딩²⁾에 따라 본 연구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대한 핵심 범주

는 <장애인으로서는 주도적인 삶의 방식을 터득하여 당당하게 함께 살아가기>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장애인으로서 임파워먼트를 경험하는 전체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심 현상이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장애인으로 사는 것에 대처하지 못하고, 외부환경과 단절되어 생활하였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에서도 배제되어 마음을 닫고 살지만 그래도 자신의 욕구와 희망을 꿈꾸며 지내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사회는 좌절뿐이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남으려는 의지를 갖고, 자신에게 맞는 생활방식을 터득하며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조절감을 갖고, 겸손과 성숙을 통해 타인에 대해 배려심을 갖게 되며 장애인에 대한 권리의식과 자신과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 사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즉,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제한점을 인식하고 살아남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터득하여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2) 임파워먼트 과정의 유형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의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전후 관계를 형성하는 각 범주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에 따라 모든 사례를 나누고, 있을 수 있는 상관관계를 정형화한 후 가설적 관계 진술문들을 전개하였다. 인과관계, 맥락적 조건, 결과에 따른 12개의 정형화된 가설 중에서 다음과 같은 3개의 가설적 관계 진술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참여자가 장애인으로서의 인식과 그냥 살음의 정도가 강하고, 사회적으로 배제와 좌절을 강하게 경험할수록, 한계를 닫고 일어서는 수준이 높아 '장애인으로서는 주도적인 삶의 방식을 터득하여 당당하게 함께 살아가기'를 사회변화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가설 2] 참여자가 장애인으로서의 인식이 약하고 사회적 배제의 경험이 약하지만, 그냥 살음의 정도가 강하고 좌절을 강하게 경험할수록, 한계를 닫고 일어서는 수준이 높아 '장애인으로서는 주도적인 삶의 방식을 터득하여 당당하게 함께 살아가기'를 개인발전을 추구하는 형태로 해나갈 것이다.

[가설 3] 참여자가 장애인으로 인식 및 그냥 살음의 정도가 약하고, 사회적으로 배제와 좌절을 약하게 경험할수록, 한계를 닫고 일어서는 수준은 낮고 '장애인으로서는 주도적인 삶의 방식을 터득하여 당당하게 함께 살아가기'를 소극적인 노력을 통해 해나갈 것이다.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의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제시한 가설적 관계진술문을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유형을 도출하였다. <표 8>과 같이 사회 참여함의 수준에 따른 장애인의 임파워먼트는 '사회변화주도형', '개인발전추구형', '소극적 노력형'의 3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① 사회변화 주도형

'비장애인을 바꿔야 한다'는 유형으로 사회가 장애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었다.

2) 선택코딩은 마지막 단계로 핵심범주를 밝히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학교생활을 뒤늦게 시작되고 배제와 따돌림으로 인한 모멸감을 심하게 경험하였다. 학업, 진학, 사회 진출 등 장애인에게 높은 벽을 쌓은 사회 속에서 싹뚱과 오투기처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회변화주도형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신 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권익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② 개인발전 추구형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유형으로 장애인으로서 잘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노력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스스로 장애정도를 심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비장애인처럼 학교에 다니고 생활하였지만, 장애 정도는 점차 심해졌고 좌절을 강하게 경험한다. 그러나 장애인도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도전하고 ‘밀어부쳐(스트리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애인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장애인 직업 교육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다. 이들은 장애인의 신체적인 기능 제약을 최소화하고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표 8>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 유형

패러다임	상위범주	사회변화주도형	개인발전추구형	소극적 노력형
인과적 조건	그냥 살음	강	강	약
	장애정도	중중	중간	중간~약함
맥락적 조건	배제당함	강함	약함	약함
	그래도 바라봄	긍정/부정	긍정적	긍정적
	좌절함	강함	강함	약함
중심현상	한계를 닫고 일어섬	높음	높음	낮음
중재적 조건	끈기있게 해냄	지속적	지속적	지속적
	지지받음	중간~많음	중간	많음
작용/상호작용 전략	생활방식을 터득함	전체적 적극적	전체적 적극적	부분적 소극적
	주도적으로 살음	전체적 적극적	전체적 적극적	부분적 소극적
결과	자기조절감을 얻음	많음	많음	많음
	배려심을 갖게 됨	넓음	넓음	넓음
	사회에 참여함	적극적	소극-적극적	소극적

③ 소극적 노력형

‘비장애인과 비교적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성장하면서 지지자원이 풍부하여 특별히 장애인으로서 차별받은 경험이 적고 현실적인 노력을 해나가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장애의 정도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아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학교교육의 기회를 가지며 장애를 자연스레 받아들였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식은 있지만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비장애인과 경쟁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목표를 낮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후회를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미래를 꿈꾸면서 소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4) 임파워먼트의 과정 분석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이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은 단절단계, 일어섬 단계, 터득하는 단계, 당당하게 함께하는 단계로 나타났으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단계] 단절 단계

장애인들은 자라면서 자신의 장애를 인지하기 전에 거부당하는 경험을 한다. 가족에게 소외당하기도 하고, 일반학교에서의 입학에 거절당하기도 한다. 학교에 가도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점점 외부세계와의 거리가 생겨난다. 주변에서 쳐다보는 시선에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자기 자신에 대해 창피함을 느끼며 외부세계와 차단된 닫힌 세계에 웅크려 들게 된다. 무엇을 바꿔볼 의지도 없이 그냥 살아가면서 외부세계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며 극단적으로 자살까지도 생각해 보는 어려운 시절을 보낸다. 이 단계는 임파워먼트 이전의 단계로서, 일단 임파워먼트 되면 유사한 삶의 실패가 발생해도 단절단계로 회귀하기보다는 일어섬 이전의 단절과는 다른 좌절에 머무르게 된다. 따라서 한번 임파워된 장애인은 좌절은 있으나 다시 단절의 단계로 회귀하는 경우는 드물다.

[2단계] 일어섬 단계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또한 수차례의 실패 경험을 통해 장애인으로서 갖는 한계를 스스로 자각하게 된다. 계속 주저하고, 웅크려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살아야겠다는 절박함에 더 이상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모습 대신 장애인에게 주어진 현실을 맞서서 자신을 일으키고자 한다. 대인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며, 자기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장애인이 평등하게 사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장애인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는데 인식과 행동을 같이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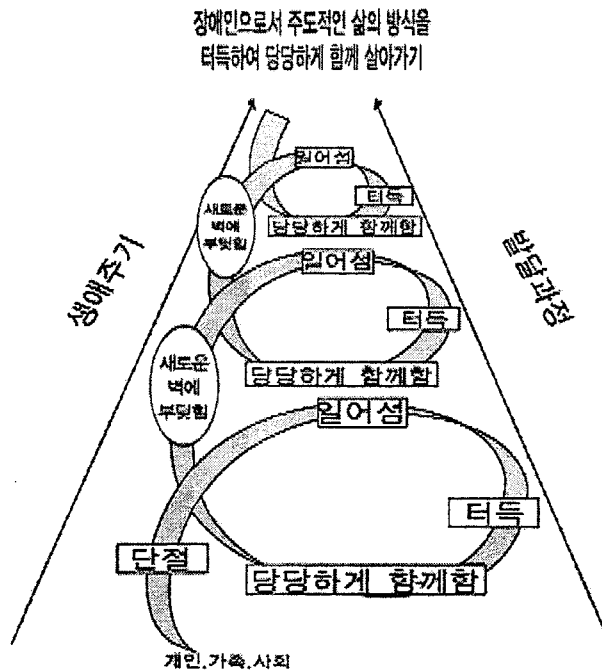
[3단계] 터득하는 단계

긍정적인 생각과 끈기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가족의 지지가 절대적이며 장애인 친구, 비장애인 친구, 학교 선생님들의 배려와 지지가 외부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장애인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면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준비를 한다.

[4단계] 당당하게 함께 하는 단계

당당하게 함께 하는 단계에서는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한다. 더 이상 장애인이라고 움츠러들지 않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다. 이제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여유를 갖기도 하며, 장애인을 소외시키는 사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주장을 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은 한 번의 임파워먼트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려움이 생겨나거나 생애주기의 발달과업에 직면하면서 그 과정이 반복되고 발전하는 순환적 구조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Kinlaw(1995)과 박내희(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파워먼트 과정 결과로서 도출된 '자기조절감을 얻음' '배려심을 갖게 됨' '사회에 참여함'의 경험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동기를 더욱 강화시키고, 이렇게 강화된 삶의 욕구는 성인기 초기에 직면하는 진로에 대한 고민(<표 1> 참고)으로 이어져 '새로운 벽에 부딪힘'을 겪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참여자들은 임파워먼트 되어도 대학의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며 힘들다고 느끼고, 성인기의 발달과제인 취업과 사회진출에 벽을 느끼며 걱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림2>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순환과정

5. 논의 및 제언

1)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은 기존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단계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절 단계’는 로드와 허치슨(Lord and Hutchison, 1993)이나 리스(Rees, 1998)의 임파워먼트 과정에서 보이는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과정과 유사하였다. 이는 성인기 이전의 장애가 빈곤, 폭력, 실업 등의 상황과 유사한 무기력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일어섬의 단계’는 파슨스 외(Parsons 외, 1998)가 제시하는 집합적인 경험을 통한 확인의 과정이나 로드와 허치슨(Lord and Hutchison, 1993)의 인식 갖기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인식을 통해 임파워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스스로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이 임파워먼트 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찾고 회복하려는 자발적인 의지와 힘이 형성된다.

셋째, ‘터득하는 단계’는 장애인이 임파워되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는 단계로 파슨스 외(Parsons 외, 1998)의 ‘비판적인 사고와 행동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준비’나 로드와 허치슨(Lord and Hutchison, 1993)의 ‘새로운 역할모델 익히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생활방식을 터득하고 이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모델 등을 제시해 주는 기능, 스스로 생활방식을 터득하도록 조력하는 상담자의 역할, 적합한 재활기구 등을 안내/연계해 주는 역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동료상담, 자조집단 구성 등의 방법 등이 모색될 수 있다.

넷째, ‘당당하게 함께 살아가는 단계’는 장애인이 임파워된 결과를 나타내준다. 이러한 결과의 양상과 정도는 참여자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임파워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참여 혹은 장애인권운동의 참여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파워되면 사회참여가 활발해져 장애인권운동 등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추정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임파워되어도 장애인권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는 형태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무기력한 대상자들을 연구한 로드와 허치슨(Lord and Hutchison, 1993)의 연구에서 참여하는 것과 기여하는 행동의 두 양상, 깁슨(Gibson, 1994)의 연구에서는 책임감과 유지함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은 연속적인 순환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졸업 후 사회진출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다시 좌절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새로운 벽과 좌절 뿐 아니라 성인기와 장년기에 진입하면서 갖게 되는 새로운 발달과제에 기인하기도 한다. 장애인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발달과제와 장애, 사회 환경이라는 다변수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임파워먼트되어도 다시 새로운 과제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더 나아가거나 좌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한번 임파워먼트되면, 단절의 단계로 회귀하지는 않고, 단절과는 다른 좌절을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좌절을 하나의 단계로 구분하지 않고, 임파워먼트의 순환 구조를 통해 설명하였다.

2) 임파워먼트 결과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임파워먼트 과정의 중심현상은 ‘한계를 닫고 일어섬’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심현상은 중재적 조건인 ‘적극적임’, ‘지지적임’을 통해 작용/상호작용 전략인 ‘생활방식을 터득함’, ‘주도적으로 살음’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장애인은 자기조절감을 얻음, 배려심을 갖게 됨, 사회에 참여함의 임파워된 결과를 갖는다.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효빈, 2001)에서는 임파워먼트의 중심현상을 ‘마음 다스리기’로 명명하면서 그 결과를 ‘삶의 질 향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비교하면, 장애인의 성인기 이전 임파워먼트 결과는 혈액투석 환자에 비해 좀더 사회참여적 성격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즉 혈액투석환자의 임파워먼트 결과가 개인적, 내적 측면의 삶의 질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장애인은 개인적 내적 측면의 자기조절감, 배려심 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의 사회참여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파워먼트 과정에서 장애인의 맥락적 조건의 특수성으로 분석된 배제와 단절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은 혈액투석환자와 달리 배제와 단절이라는 특수한 맥락적 조건을 경험함으로써 임파워먼트 결과에서도 이러한 배제와 단절을 어떻게 극복하고 당당하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변인의 하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의 임파워먼트의 결과는 장애인의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억압받는 소수집단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임파워먼트 차원에 사회구조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밀리 외(Miley 외, 1995)는 임파워먼트의 차원을 개인, 대인관계, 구조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 차원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의 강화, 대인관계적 차원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 구조적 차원에서는 사회구조관계에서의 권한부여를 제시한다. 또한 짐머맨(Zimmerman, 1995)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개인내적, 상호작용적, 행동적 임파워먼트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면서도 장애인의 성인기 이전 임파워먼트의 결과를 밝히고 있어 그 실천적 함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대한 이론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제언

이 연구는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을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가 장애

인의 임파워먼트 과정과 결과에 초점을 두고는 있지만, 위에서 논의된 것 외의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은 성인이 이전에 맥락적 조건에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배제와 단절을 강하게 경험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빈곤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맥락적 조건이며, 혈액투석환자나 만성질환자 어머니의 임파워먼트 과정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특수한 장애인만의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의 맥락적 조건의 완화 혹은 소거를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장애인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꿈꾸거나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희망이 긍정적인 변화가능성을 일으키는 동인이 된다. 장애인이 꿈꾸거나 바라보는 희망은 스스로 끈기있게 해내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는 긍정적 변화를 위한 원동력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여러 임파워먼트의 연구(Gibson, 1995; Zimmerman 외, 1999; 김희성 2002)에서 주요한 중재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회적 지지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 이외에도 이들을 열외없이 대해주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준 수평적인 도움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단순히 지지적 체계를 구성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을 한명의 사회인으로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하게 대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해 준다.

넷째, 장애인은 임파워먼트 과정에서 사회변화주도형, 개인발전추구형, 소극적 노력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임파워먼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에 기초한 개별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가시화된 범주로 설정되지 않았지만, 연구 참여자 중 상당수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생각하였다고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인 자살의 고위험성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과적 조건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자원의 부족으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 혹은 세상을 모름, 뒤늦음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하위범주로 유목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자원 및 정보의 부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적장애가 없는 장애대학생을 중심으로 임파워먼트 과정을 연구하고 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각 생애주기의 대상, 장애종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 과정을 연구하여 장애인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통합적 이론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분권. 1991. "장애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통합". 『학생생활연구』, 17권 1호. pp. 149-171.
 권순미. 1986. "지체부자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 2002. "여성장애인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기와 장년기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 10호. pp. 9-36.
- 김미옥·김희성·이민영. 2003. "장애청소년의 사춘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0권, 1호. pp. 167-197.
- _____. 2003. 『장애인복지실천론』, 나눔출판.
- 김인숙·우국희. 2002.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임파워먼트의 의미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호. pp. 34-61.
- 김효빈. 2001. "혈액투석 환자의 임파워먼트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효선. 1981. "지체장애 아동의 자아개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성. 2002.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은희. 1997. "장애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내희. 1997. "임파워먼트: 다수준의 과정개념: 개념의 이해와 실천수단에 대한 소고". 『서강경영논집』, 8집, pp. 127-145
- 서윤·류종길. 1998. "장애인수용시설 지체 부자유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권 3호. pp. 91-114.
- 양돈규.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경향에 따른 대인관계 활동 및 만족도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0권, 3호. pp. 481-500.
- 양옥경, 김미옥. 1999.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권한부여 모델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 제143호. pp. 155-172.
- 이민영. 2002.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슈퍼비전 프로그램 개발: 임파워먼트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사회복지연구』, 제 1권, pp. 226-250.
- 이지연. 2001. "장애청소년의 진로교육을 통한 고용연계강화". 『장애인 고용』, 39호. pp. 44-67.
- 정혜경·안옥희·김경희. 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0권, 2호. pp. 107-126.
- 최윤정·이민영·조미자·문정신. 2003. "치매노인 여성의 체험연구". 『한국노년학회』, 제 23권, 1호. pp. 113-128.
- Bolton, B., Brookings J. 1998.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rapersonal Empowerment."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43. No. 2. pp. 131-142.
- Browne, C. V., 1995. "Empowerment in Social Work Practice with Older Women," *Social Work*, Vol. 40, No. 3, pp. 358-364.
- Gibson C. H. 1995. "The Process of Empowerment in mothers of chronically ill childre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21, pp. 1201-1210.
- Gutierrez, L. 1990. "Working with Women of color: An empowerment perspective". *Social work*. Vol. 35. No. 2. pp. 149-154.
- Kinlaw, D. C. 1995. *The Practice of Empowerment*. Gower.
- Lord J., Hutchison P. 1993. "The Process of Empowerment." *Canadian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Vol. 12. No. 1, pp. 5-22.
- Miley, K. K. , O'Melia, M. and DuBois, B. L., 1995,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An Empowering Approach*. Allyn & Bacon.

- Ortiz-Torres, Blanca. 1994. "The Ecology of Empowerment for At-risk Youth." Ph. D. diss. New York University.
- Parsons R. 1999. "Assess Helping Process And Client Outcomes In Empowerment Practice." *I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edited by Shera w. & Wells L.M. Canadian Scholars' Press Inc.
- Rees S. 1998. "Empowerment of Youth". In Gutierrez, Parsons, Cox(ed.), *Empowerment in Social Work Practice*. pp. 130-144.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Renz-Beaulaurier R. 1998. "Empowe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ole of Choice". In Gutierrez, Parsons, Cox(ed.), *Empowerment in Social Work Practice*. pp. 73-84.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Rothman J. C. 2003. *Social Work Practice Across Disability*, Pearson Education Inc.
- Stevens S. E., Steele, C. A., Jutai, J. W., Kalins, I. V., Bortolussi, J. A., Biggar, W. D., 1996. Adolescents with Physical Aspects of Heal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19, pp. 157-164.
- Strauss, A. and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Sage.
- Wolfensberger. W., 1983, "Social role valorization: A proposed new term for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mainstreaming , integration, and cabbage and kings", *Mental Retardation*, 33(3), pp. 163-169
- Zimmerman M.A. 1990. "Toward Theory of Learned Hopefulnes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24. pp. 71-86.
- _____. 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ssues and Illustra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3. No. 5, pp. 81- 599.
- _____ and Ramirez-Valles J. Maton K.I. 1999. "Resilience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Male Adolescents: A Study of the Protective Effects of Sociopolitical Control on their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6), pp. 33-751.
- _____ and Rapport, J. 1988. "Citizen participation, perceived control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5), pp. 725-731.

A Study on Empowerment Process of the Disabled - Focused on Experience of 'Pre-Adulthood' -

Kim, Mi-Ok
(Chonbuk University)
Kim, Hee-Sung
(MyungGi College)
Lee, Min-Young
(Ewha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empowerment process of the disabled. Participants were 11 disabled college students and they were individually face-to-face in-depth interviewed until data were saturated. This study used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based on Strauss and Corbin(1998). With the qualitative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105 concepts, 22 subcategories, and 12 categories were generated. In the axial coding, a paradigm model was proposed as follows: The central phenomenon of the empowerment process of the disabled adolescents was 'Rising from the Limits'. The causal conditions were 'Just living' and 'realizing disabilities'. The contextual conditions were 'Being excluded', 'But wishing', and 'Breaking down'. The intervening conditions were 'Without giving up' and 'Taking support'.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Grasping own lifestyle' and 'Being proactive'. The consequences were 'Acquiring the self-control', 'Getting generosity', and 'Participating in society'. In the selective coding, the core category was 'to live together stately with grasping own lifestyle pro-actively as the disabled'. Based on the core category, three types and 4 stages of the empowerment process of the disabled adolescents were found. The types were 'Social change oriented type', 'Self-development oriented type', and 'Passive effort oriented type' and the stages took 'Isolation stage', 'Rising stage', 'Mastering stage' and 'Stately being together stage'. In particular, this process had the circulation structure of which these 4 stages are not terminated, and developed and repeated. In conclusion, these results convey to us th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about empowerment process of the disabled as their healthy -whole and unique- development process. And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social work services and theories about the disabled focusing on the pre-adulthood period.

Key words : disabled, empowerment,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접수일 2004. 9. 22. 게재확정일 2004. 11. 10.]